

한국의 축산업과 특수동물

김 상 우/축산기술연구소 특수가축연구실 연구사

I. 서론

특수동물이라 함은 그 수요 및 공급에 있어서 희소성이 인정되고 그 동물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특수동물은 몇년을 주기로 계속 새로운 동물들이 소개되고 또 이내 사라지는 현실을 그동안 우리는 보아왔다. 왜 이렇게 새로 소개되는 동물들이 산업화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특수동물의 입식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특수동물의 특징

특수동물과 상충되는 용어로 가축이라 함은 축산업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동물로서 가축으로 분류된 동물들은 사육두수 및 사육 농가수도 많을 뿐 아니라,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측면에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금융적인 지원까지도 받고 있다. 또한 생산물의 소비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산업화가 이루어져 있어 다른 특수동물들 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동물이라 하

겠다.

그러나 특수동물들은 비록 외국에서는 그들 특수동물들이 산업화 되어있고 소비 또한 많아 부가가치가 높은 동물로 사육되고 있을지 모르나 국내에서는 그 수요, 공급에 희소성을 지니고 있어 고가에 거래되고 분양되고 있는 실정이지 산업화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외국에서 비록 산업화가 되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동물로 분류되어 많은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을지 모르나 국내에서는 새로 소개되는 특수동물들은 소비 및 산업화가 전무한 상태로 지금 당장은 희소성 때문에 고가에 분양될지 모르나 앞으로의 수요공급 및 산업화등 전망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보아야 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개되었다 사라졌거나 일부 사육되고 있는 특수 동물들을 보면 양고라토끼, 렉스토끼, 달팽이, 지렁이, 뉴트리아, 밍크, 은여우, 곰과 기타 애완동물 및 최근의 타조에 이르기까지 참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대학에서 애완동물학 과가 생겨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2. 입식전 고려사항

1) 국내에는 특수동물에 대한 연구자료나 전문서적 이 전무한 상태이다.

대부분 입식을 하는 농가는 분양업장의 이야기만 듣고 사육을 시작한다. 그러나 어떤 축종을 선택하던 먼저 충분한 시장조사와 그 동물에 대한 일반특성 및 사육방법과 앞으로의 전망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난 다음에 축종을 선택해야 한다.

국내에는 특수동물에 대한 연구자료 및 서적들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나름대로 충분한 사전준비가 되고난 다음에 축종을 선택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분양을 하는 곳에서 나오는 리후렛 정도의 알팍한 지식으로 새로운 축종을 해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며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난 다음에 축종을 선택해야 실패의 확율을 줄일 수 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남처럼 따라하면 2등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중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2) 우리의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동물인가?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1970년대 우리나라에 순록이라는 사슴이 수입된 일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록은 암수모두 뿔이 나는 사슴품종의 하나이다. 그러나 녹용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겐 호감이 가는 동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순록은 위도 50도 이상의 추운지방에서만 서식하는 품종이다. 이 사슴을 따뜻한 제주도에서 수입하여 입식시켰으니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결국 수입된 순록은 전멸하고 말았다.

모피를 생산하는 밍크와 은여우 또한 추운 지방에서 적합한 동물로 우리의 환경에 적응치 못하고 감소 추세에 들어가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기후 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동물들은 산업화로 쉽게 정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동물을 선택시엔 우리기후 풍토에 적합한 동물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앞으로의 산업화 전망 검토

특수동물이 장차 우리나라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 동물의 생산물들의 소비와 이와 관련된 산업이 동시에 발달되지 않고는 결코 축산업으로 자리잡기는 어렵다. 외국에서 아무리 부가가치가 높은 축종이라 할지라도 분양만으로는 그 축종이 자리잡기는 어려우며 결국에는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폭락으로 최후를 맞고 마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또한 특수동물에 대한 연구도 뒷받침이 되어야만 축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결코 주먹구구식 계산으로는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산업화를 위한 여러가지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하나의 축종으로 자리잡은 사례는 유산양으로 1992년도 전국에 150여두에 불과하던 유산양은 관련분야의 산업화와 함께 하나의 축종으로 자리잡아 시판되는 산양유의 생산과 함께 국내에는 현재 1만두 이상의 유산양이 사육되고 있다.

특수동물 수입업자는 앞으로 분양뿐만 아니라 스스로 산업화를 할수 있는 방안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메스컴과 과장 광고

현재 특수동물에 대한 분양광고는 너무나도 과장된 광고가 많은 것 같다. 생산물에 대한 소비나 제반의 산업화가 안된 상황에서 지나친 과장 광고는 단기간에는 분양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나 장차 다가올 생산물의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에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검정되지도 않고 고기 가죽 알 등 생산물에 대한 소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나친 과장 광고는 그 축종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가 모두 피해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수동물은 사육농가수와 사육두수가 적어서 희소성이 인정될때 고가에 거래되고 안정적인 축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특수동물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명심해야 할 사

항은 장차 특수동물을 시작한 사람모두가 분양을 해서 소득을 올리려 한다면 사육하는 사람 모두는 실패를 하고 말 것이다. 결국은 최종산물의 소비에 의해 소득이 발생할 때 그 축종은 안정적인 축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친 과장 광고로 단기간에 분양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일부업자들에게 자제와 함께 정정당당한 광고를 부탁하고 싶다. 또한 메스컴을 통해 특수동물들이 방영되고나면 모두들 그 축종밖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다른 분이 호황을 누리고 있을때 늦게 그 축종에 뛰어 들어가면 대부분 실패를 거듭해 온 사실을 우리는 여러번 보아왔다. 또한 메스컴도 호기심으로 특수동물을 방영할 수는 있으나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방영을 한다면 시청자들도 현명한 판단을 할것으로 생각을 한다.

III. 결론

선각자 선구자들은 불모지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었다. 물론 새로운 특수동물을 도입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산업화 한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개방화 시대로 국제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하나 없이 단지 외국에서 특수동물을 도입만하여 분양을 해서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면 그 축종은 국내에서 수명이 짧은 것이며, 산업화 방안과 생산물의 소비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하나 없이 특수동물을 시작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새로 특수동물을 시작하는 농가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특수동물은 1차산업이 아니라 3차산업이라는 사실이다. 즉 생산물에 대한 판매를 스스로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새로운 특수동물을 시작하는 농가 모두다 분양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려 한다

면 당분간 몇년은 가능할 지 모르나 한정된 수요에 과잉 공급으로 가격의 폭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산물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특수동물이 하나의 축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축종과 관련된 산업화가 함께 따라주지 못한다면 그 축종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정보습득 등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자기의 생산물을 남이 팔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광고에서 처럼 「3마리 사육으로 연 1억원 소득은 현실」. 이렇다면 왜 남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분양업자들은 1~2년간은 가능할지 모르나 이렇게 분양을 받아 새로 시작한 농가는 결코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축산업은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다. 우리는 똥 냄새를 맡고 똥을 치면서 축산을 한다. 과거 우리는 여러차례 특수동물들이 도입되어 흥하고 망하는 전철을 여러번 보아왔다. 앞으로는 그러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특수동물은 수요와 공급의 희소성과 특수성이 있으며 소비층 또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떠한 축종이 당장 좋다고하여 너나 할것 없이 누구나 그 축종에 뛰어들었다면 산업화가 안된 상황에서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특수동물은 특수동물 나름대로 그 동물의 산업화와 함께 서서히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경구

사람이 대부분의 일을 칭찬하거나 내리 꾸거나 하는 것은, 그것들을 칭찬하고 그것들을 비난하는 것이 유행이기 때문이다.

<F.D. 라로슈푸코오/도덕적 반성>